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3. 2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구호활동가, 니제르서 테러단체에 피랍 6년 만에 석방
 - 3.20 언론은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15년간 살면서 구호 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16년 10월 테러단체에 납치되었던 미국인 「제프리 우드케이」가 6년여만에 석방되었다고 보도
 - ※ 美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니제르 정부가 석방을 도왔으며, 「토니 블링컨」美 국무부 장관이 이달 초 니제르를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

유럽

- 튀르키예, 정상회담서 핀란드 NATO 가입 승인 예정
 - 3.16 언론은 17일 「에르도안」 튀르키예 대통령이 「니니스퇴」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핀란드의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 가입 승인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
 - ※ 이로써 핀란드가 스웨덴에 앞서 NATO에 단독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부언
- 英, '쿠란 소각' 공언한 덴마크 극우 정치인 '입국금지'
 - 3.21 언론은 英 안보부 장관이 '쿠란 소각' 계획을 밝힌 반이슬람 주의자 극우 덴마크 정치인 「라스무스 팔루단*」에 대해 '입국금지' 조치를 하였으며, 同人을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
 - * 덴마크 극우정당 'Stram Kurs(강경노선)' 창립자로 지난 1월 스톡홀름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쿠란을 불태워 튀르키예·스웨덴間 외교 갈등 촉발

중 동

- 이스라엘, 레바논 출신 폭탄테러범 배후 조사
 - 3.16 이스라엘 경찰특공대는 지난 13일 이스라엘 북부 므깃도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의 용의자를 추적, 국경 인근 실로미 외곽에서 레바논으로 월경하려던 테러범을 사살했으며 배후를 조사중이라고 발표
 - ※ 이번 테러범의 침투에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언

○ 이란 법원, 성지 테러범 2명에 사형 선고

- 3.19 언론은 이란 파르스주 지방법원이 작년 10월 이슬람 시아파 성지에서 테러*를 자행한 이슬람 무장단체 대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, 同테러에 가담한 다른 대원 3명에게 징역(25·15·5년)형을 선고했다고 보도
- * 지난해 10.26 이란 중부 시라즈 성지에서 신도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

아 · 태평양

○ 韓, 드론테러 대응 강화를 위해 '전파법 개정' 추진

- 3.21 홍석준 의원(국힘)은 國內 드론테러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법한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피해 발생시 해당 장치 운용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'전파법 개정案*'을 대표로 발의
- * 전파차단장치 운용자(개인)가 아닌 기관이 먼저 민사피해 보상 후 원인을 야기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항 신설(형사책임 면책 규정은 既 존재)

○ 파키스탄, 무장괴한 총격으로 지역정치인 등 10명 사망

- 3.21 언론은 20일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무장 괴한이 이동 중인 차량을 세운 후 무차별 총격을 가해 지역정치인, 경찰 등 10명이 사망하였으나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조직이나 개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도
- ※ 파키스탄에서는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발루치스탄해방군(BLA), 이슬람국가(ISIS) 등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테러 지속 발생 중

아프리카

○ 중앙공 금광에 무장괴한 습격, 중국인 9명 사망

- 3.1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부 침볼로 금광에 무장괴한들이 난입 후 무차별 총격을 가해 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, 당국은 同금광이 중국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곳으로 사상자는 모두 중국인이라고 발표
- ※ 배후를 주장하는 세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, 정부는 주변 지역에서 수시로 정부軍을 공격하고 있는 무장 반군조직 '개혁애국자동맹'의 소행으로 의심

알샤바브, 소말리아 도심內 연쇄 폭탄테러 자행

- '22.3.23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총선을 앞두고 히란州 州都인 베레드 웨이네市에서 연쇄 폭탄테러를 자행, 최소 40명 이상이 사망
 - 첫 번째 공격은 자살폭탄 테러로, 투표소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의원 2명과 경호원 등이 사망
 - ※ 목격자는 “자살폭탄 테러범이 의원을 향해 달려가 그를 부둥켜안고 폭탄을 터뜨렸다”고 진술
 - 이어서 첫번째 공격 수분 후에 테러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 인근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, 수십여명이 사망
-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며, “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을 겨냥했다”고 주장
 - ※ 同 테러 몇 시간 전에는 모가디슈 공항에서 소말리아군에게 총격, 6명 사망
- 「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」 대통령과 「모하메드 후세인 로블레」 총리는 알샤바브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

< 알샤바브(AS) >

- (목표·결성) 소말리아內 외세 축출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'06년 결성
*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08.3), 영국·캐나다('10.3)
- (주요인물) 지도자 「아흐메드 우마르」, 副사령관 「마하드 카라테」
- (연계세력) 알카에다(AQ, AQAP, AQIM), 보코하람
- (활동지역) 소말리아 全域 및 케냐內 소말리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모가디슈 시청 회의실 자폭 테러(시장 등 고위간부 8명 사망)
'18.11 모가디슈 내무부 청사 차량폭탄·총격 테러(사망 58명, 부상 106명)
'17.10 모가디슈 사파리 호텔 등 차량자폭 테러(사망 276명, 부상 300여명)